



내 마음에 머문 꽃

오래된 이야기 한 장을 넘기다
젊은 날 내 마음도 따라 넘겨졌다
이 마음도 한 때는 불이었다
벚꽃 보다 앞서 피고 지던 젊은 날의 설렘들...

하지만 삶은
사랑만으로 견디지 못하는 긴 겨울이었다
가족이 되고, 엄마가 되고, 여자가 아닌 누군가로 살아온 날들
그러다 책속의 그녀 "순옥"을 만났다

내 젊은 날처럼
단 하나의 마음을 주고
끝까지 지켜낸 아름답고 아픈 사랑...
그리고 깨달았다
사랑이란,
간직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놓아주는 것임을...

내 맘엔 아직
그때의 사랑이
조용히 숨쉬고 있다
아직
지지 않은 봄처럼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사랑 <이광수>

작품 설명

이광수의 「사랑」은 주인공이 사랑, 결혼, 종교 사이에서 갈등하며 참된 사랑의 의미를 탐구하는 이야기로 인간의 내면과 정신적 사랑을 깊이 있게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안빈'과 '석순옥'의 절제된 사랑과 기다림은 우리의 삶과 지나온 젊은 날을 떠올리게 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아오느라 마음 깊이 접어두었던 “그때의 나”와 “그때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꺼내 보았다. 삶은 지나가지만 마음에 머문 사랑은 때때로 다시 피어난다. 봄처럼, 그리고 50대에도 다시 피어나는 우리 셋처럼.

사랑은 간직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조용히 놓아주는 것임을 이제는 알게 된 우리 셋의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 이 시는 시간이 흘러도 조용히 피어있는 한송이 사랑의 기억이다.